

전남광주 노동계 “통합시 성공, 노동·시민 참여가 핵심”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남광주노동포럼 출범…산업전환·지역발전 해법 논의
금융·에너지·철강·조선·건설 등 산업 노조 대표 한자리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동과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 노동계는 산업전환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노동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가칭) 전남광주노동포럼(준)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남광주노동포럼이 주관한 행사에서 윤종해 포럼 상임고문(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전남과 광주가 행정적으로 통

합된 데 이어 민간 차원에서도 노동포럼이 출범했다”며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과 정치 중심을 넘어 노동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현안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박만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재투자율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금융 접근성, 지역 고용 등을 지방은행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지방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영향평가 제



(가칭) 전남광주노동포럼(준)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대화’를 개최했다.

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창용 전국전력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필수”라며 한국전력의 인력과 투자 확대, 전력망 확충 인력에 대한 별도 정원 관리와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권재 aT 노조위원장은 혁신도시 정착

를 제고를 위해 주거·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통합특별시, 나주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성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공정한 인사제도에 달려 있다”며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호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지부장은 AI 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산업전환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정 협력체제와 직무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항청지회 지회장은 조선업 하청 확대와 이주노동자 증

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업·노동·지역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부장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 틱톡샵 타고 유럽 공략 ‘성과’

2개월 간 9만7000유로 판매
숯폼 등 활용 해외 판로 확대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이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틱톡샵(TikTok Shop)을 활용한 유럽시장 공략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다 디지털 기반 수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5~6월 틱톡샵을 활용한 해외 판촉사업을 통해 9만7000유로(약 1억5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지 소비자들인 숯폼 영상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접한 뒤 곧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마케팅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별시 유럽사무소가 제품 선정과 현지 크리에이터 발굴, 마케팅 운영 전반을 맡았다.

판매 제품은 김과 김부각, 말차, 오징어 스크, 유자차, 두부 스낵, 곤약젤리 등 모두 79개 품목이다. 현지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숯폼 콘텐츠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 특성을 소개하고 소비자



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매를 이끌어 냈다.

특별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판매 실적은 넘어 유럽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수산물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지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도 함께 검증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현지 협력사인 모모고의 이민철 대표는 “짧은 영상만으로도 유럽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지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확대해 지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숯폼 콘텐츠와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판매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틱톡샵을 비롯한 신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현지 크리에이터 협업과 라이브커머스를 강화해 지역 농수산물식품의 해외 판로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검색 중심에서 영상 기반 소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지역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광주본부, ‘농심천심 도농이음 직거래장터’ 현장지원

북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서 제철 농산물 홍보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북구 본촌동 소재 북광주농협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심천심 도농이음 직거래장터’를 현장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북광주농협 관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의

마음을 잇는 ‘농심천심’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철호 본부장, 구상봉 조합장 및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휴가철을 맞아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을 찾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안내하며 제철 농산물을 홍보했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농업인

이 정성껏 생산한 우수 제철 농산물과 먹거리를 도시민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직거래장터를 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도농상생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휴무 없이 오는 26일까지 운영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평동농협-일번지푸드, 지역상생 사회공헌 협약

지역 제철농산물로 만든 반찬 정기 지원

농협광주본부는 광주평동농협과 일번지푸드가 최근 ‘함께하는 지역사랑 반찬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광주 광산구 연산동 일번지푸드 사업장에서 열렸으며, 장영순 일번지푸드 대표와 최삼규 평동농협 조합장, 임직원, 봉

사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일번지푸드가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을 구입해 조리한 반찬 50~60인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평동농협 임직원과 여성조직인 부녀회·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마을별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찾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균형 잡힌 먹거리를 지원하는 상생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영순 일번지푸드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반찬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삼규 평동농협 조합장은 “지역 기업과 함께 농가와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대학생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모집

내달 11일까지 13팀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2026 대학생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광주대·전남대·호남대 앵커사업단이 공동 주관한다. 송원대·광주여대·남부대·서영대·동강대 앵커사업단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소셜

벤처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은 아이디어 고도화 워크숍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모델을 구체화한 뒤 본선 발표대회에서 성과를 발표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초대석



서영교 국제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영매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창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타’·A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

전남의 보물섬



바람에 기대어 역사를 만든다

이달의 이슈



광주광역시 광주로에 들어선 반도체 도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프로젝트’가 움직인다